

몽골

Research Note

6 June, 2011

대한민국과 몽골

고요한 아침에서 푸른 하늘이 뜬다.

견고한 유대 한국과 몽골은 지난 20년 동안 중요한 외교 및 무역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몽골은 제 3의 이웃으로서 또한 아시아 4 번째 경제국인 대한민국과 협력관계를 확장시켜나가므로 그 동안 주요 2 대 교역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서 무역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몽간 협력관계는 양국이 지난 1990 년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왔으며 특히 한국은 과도기적 개혁단계에 있는 몽골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 기여해 온 반면, 몽골은 한국의 주요정책이슈중의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세 번째 무역 상대국 지난 10년간 두 국가의 교역은 4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이어서 3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한국은 몽골의 가장 큰 해외 노동 시장이다. 3 만 8 천명에서 4 만명 사이의 몽골인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 투자 한국은 몽골의 4 번째로 큰 해외 직접 투자 (FDI) 국가이다. 몽골의 대외 무역기관 (Foreign Trade Agency of Mongolia)에 의하면 1990 년 이후 총 US\$255mn 이 투자 되었다. 또한 US\$137mn 을 대출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 및 계약은 다음과 같다.

- **Skytel:** SK Telecom 과 몽골 주주 합작. CDMA 모바일 서비스 제공.
- **Unitel Corp.:** 50/50 합작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GSM 모바일 서비스 제공.
- **Mongolian Telecom:** 공기업 민영화시 KT에서 지분 40%를 US\$4.5mn에 인수.
- **서울 그룹:** 울란바토르에서 한국형 럭셔리 아파트 도입
- **Mongolian Development Bank:** 신규 설립된 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 운영팀이 경영진의 일환으로 고용 될 것으로 예상됨.

국영 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철강업체인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들은 Western Tsankhi 탄광, Tavan Tolgoi 광산 개발 사업 등에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컨소시엄은 공동으로 일본과 러시아 기업과 입찰 중 이다. 2011 년 3 월, 롯데 E&C 주도아래 한국 컨소시엄은 1,040km 몽골 철도 공사에 대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

Eurasia 는 믿는다 몽골은 견고한 정치적 지원, 우호적인 경제환경과 매력적인 투자 프로젝트 등에 기인하여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몽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자원부국인 몽골의 자원 시장의 성장 붐에 따라 증대될 것을 낙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몽골 주식 시장 과 사모 펀드 투자 등 금융 거래 활성화에 대하여 모든 (자원 및 비 자원) 분야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몽골의 천연 자원, 인프라, 부동산 시장의 대한 한국 투자자, 사업가, 기업 등의 관심도가 점차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Sardor Koshnazarov
Head of Research
sardor.koshnazarov@eurasiac.com

Temuulen Munkhbaatar
Analyst
temuulen.munkhbaatar@eurasiac.com